2022 BIBLE ON 365-115

4/25(월) 대상 8-10장 다함께 참여하는 미래공동체

역대기는 본격적인 다윗 이야기 전에 <사울 왕>에 대해 기록합니다(10장).
사울 가문과 그가 속한 베냐민 지파의 족보가 한 번 더 소개됩니다(8-9장).
초대 왕으로서의 특별한 지위를 인정하는 셈입니다.

그러나 사울은 반면교사로 삼을 <나쁜 예>로 등장합니다.
<하나님 나라>, <예배 공동체>라는 역대기의 기준으로 보자면,
사울은 불순종과 죄로 인해 심판받은 왕입니다(10:13-14).
그는 하나님께 묻기보다 신접한 자를 찾았습니다(삼상28:3-25 참고).
유다도 동일한 이유로 패배와 파멸을 맞은 바 있습니다(9:1).

하나님은 사울을 심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(10:14, 28:4).
사울과 대척점에 서 있는 다윗은 공동체가 따를 <좋은 예>로 등장합니다.
새로운 공동체는 사울과 같은 불순종, 불신앙을 비워내고
하나님께 신실했던 예배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순간 묻고
그 뜻에 반응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.

새로운 공동체에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포함됩니다.
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자들은 남 왕국의 지파만이 아니라
에브라임/므낫세로 대표되는 북 왕국 지파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(9:1-3).
역대기가 유다/다윗 자손에 집중하는 것이 사실이지만,
이는 공동체의 근간과 통치에 관한 부분이요
공동체 재건의 주역은 온 이스라엘, 모든 백성인 것입니다.

하나님 나라는 왕 한 사람에 의해 건설되지 않습니다.
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, 한 사람, 신실한 예배자들에 의해
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(Demokratisierung, 역대기의 민주화 경향).

나는 미래공동체에 속할 준비가 되었습니까?
❶ 소견대로 살던 불순종, 불신앙의 옛 일을 버렸습니까?
❷ 하나님 안에서 모든 형제/자매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까?

시작기도 + 통독 대상 8-10장